

한국 대학생의 프랑스어 작문 오류에서 나타나는 영어 간섭현상

한 정 길
(한국교원대학교)

Han, Jung-Kil. 2008. An analysis of Korean student's errors in French composition: English inference. *Linguistic Research* 25(1), 103-125. This article analyses major errors observed in French composition, especially those closely connected to syntactic structures. I have collected the relevant data from a French composition class for sophomore students in a university. During my analysis, I first show how Korean sentence structures are transmitted to French in composition. Then, I show that many errors occur as a consequence of English interference; for example, the conversion of indirect object to subject in passive construction, the position of an attributive adjective in a noun phrase, the use of the lexical items which differ in syntactic representation, etc. In the use of the article, moreover, the Korean learners often refer to the English system as Korean lacks the article system. As a consequence, many errors occur in the employment of (in)definite articles in plural nouns, attributive phrases, and abstract / mass noun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words English interference, French, composition, syntactic structures, article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불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 학기 동안의 불작문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오류를 수집하고, 해당 오류 중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선행 학습한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영어에의 언어 간섭에 의한 오류들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분석 대상 학생들은 불어 교육과의 2학년 학생 7인, 3학년 학생 5인, 4학년 학생 1인 그리고 프랑스어를 복수 전공하는 타과 4학년 학생 1인 등 총 16명이다.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제1외국어로서 영어를 상당기간 학습해 왔으면서 상대적으로 프랑스어는 대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전혀 접해본 적이 없거나,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잠깐 접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프랑스어에의 접촉이 없었던 학생들이다. 대학교 2학년 재학생 대상의 강의이고, 대학교 재학 중 수강한 불문법 강의, 발음 연습 강의, 불어 회화 등의 강의들을 감안하여, 교재는 기본 단계 수준의 글쓰기 교재로서, 불문법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지 않으면서 선행 학습한 불문법 관련 지식들과 연관지을 수 있

도록 구성된 교재를 택하였다.

채택한 프랑스어 작문 교재는 각 과의 도입부에 학습 목표인 프랑스어 구문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주어져있고, 해당 구문구조와 관련된 약 20여개의 연습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연습문제는 대부분 단문 형식의 한국어 문장으로 이를 프랑스어로 옮기도록 꾸며져 있다. 제시된 연습문제가 상황이나 연결 문맥이 나타나지 않은 고립된 단문이기 때문에, 철자 및 형태 일치 등의 오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특히 관사의 사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그 사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오류의 판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당 제시문을 대하였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로 옮긴 프랑스어 문장을 정답으로 간주하여, 이에 벗어나는 답안들은 일차적으로 모두 오류의 수집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주로 구문 구조와 관련된 오류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정서법 및 발음과 관련된 오류는 제외시켰다.

1950년대 이후부터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한 연구는 언어들 간의 구조 차이에 착안한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새로운 학습 대상 언어에 대한 언어 체계를 만들 때, 자신의 모국어 언어체계에서 출발한 복합적인 체계를 형성하는데,

“On ne parvient à créer, avec la langue seconde, un second comportement verbal spontané qu'en construisant, à partir d'un système d'habitudes acquis avec la langue maternelle, un nouveau système tout aussi complexe et conforme aux contraintes spécifiques de cette langue seconde.”¹⁾

모국어 또는 선행 학습한 언어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목표 언어에 부정적으로 전이하여 발생하는 간섭에 의한 오류는 외국어 학습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이 이론을 따르는 학자들은 언어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기술함으로써 발생할 오류들을 미리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즉 학습자에게서 발견되는 오류가 두 언어 간의 구조적 차이에 의한 간섭현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국어 혹은 선행 학습한 언어와 목표 언어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요소 및 규칙이 있는 언어 현상인 경우는 학생들은 이를 쉽게 학습할 수 있고,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반면 아주 상이한 또는 많은 차이가 있는 언어 현상에 있어서는 언어 간의 부정적인 전이로 말미암아 많은 간섭오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모국어를 가능한 한 배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류를 수업에서 피해야 하는 현상으로 무조건 배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오류의 규칙성이라는 측면에 착안하기 시작한다. 오류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오류를 통해 외국어 학습의 성격을 이해하고 긍정적 차원에서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된다. 학습자의 오류가 단순히 두 언어 간의 구조 차이에 기인하여 무조건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규칙을 적용

1) Charles-Pierre Bouton(1974) <L'acquisition d'une langue étrangère>, Martine Marquillo Larruy (2003: p.63)에서 재인용.

함으로써 생겨나는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것인데, 오류의 유형과 성격을 어린이의 언어 학습과도 비교되는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규칙화의 진행 단계와 연관하여 설명하면서 중간 언어²⁾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즉 목표 언어에서의 오류는 다른 언어의 전이에 의한 것 외에 목표 언어 내부에서 어떤 언어 현상이 전이됨으로써 발생하는 언어 내적 오류에 의한 것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치게 되는 단계라는 것이다. 게다가 모국어를 달리하는 외국인들에게서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발견된다는 일련의 분석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언어 간의 구조 차이가 곧 오류의 발생으로 연결된다는 시각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는 해당 언어 현상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술하기 어려운 / 쉬운 구조인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습자의 인지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³⁾ 오류와 관련된 이러한 일련의 언어 이론의 추이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는 가는 본 논문의 취지와 무관하며, 학습자의 오류가 어느 특정 이론만으로 모두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불작문 강의를 수강한 대상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해본 결과,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짓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며, 학생들은 선행 학습된 언어와 목표언어간의 커다란 구조적 차이가 있는 언어 현상이라고 해서 적용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느끼거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분석하여, 해당 오류들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 이론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2. 한국 대학생의 프랑스어 작문 오류 분석

2.1 오류의 특징

영어에 의한 간섭 오류의 예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채택한 교재의 성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 학자에 따라 *interlangue*, *systèmes approximatifs*, *grammaire intériorisée*, *systèmes intermédiaires*, *dialectes idiosyncrasiques*, *langue de l'apprenant*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3) 오류를 문법적으로 전혀 허용되지 않는 틀린 형태를 사용하는 *faute absolue*와 해당 형태는 존재하지만 일정 문맥에서 잘못 사용된 경우의 *faute relative*로 구분할 경우, 예를 들어 *Je suis voyagé en train*과 같은 *faute absolue*는 수정하기 쉬운 반면 *Je chante en haute voix*와 같은 *faute relative*는 상대적으로 수정이 어렵다. 본 논문 분석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드러나는데, 한 예로 학생들은 관사의 의무적인 사용이라던가 혹은 무관사명사의 사용 구분들은 비교적 정확히 단기간에 습득하는 데 반하여 상황이나 문맥에 따른 관사의 선택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오류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제시문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연습문제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의 구조가 프랑스어 작문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어 제시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프랑스어의 구문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어 제시문의 외견상의 문형 구조를 (혹은 학생들이 믿고 있는 바의 한국어에서의 기능을) 그대로 모사하여 옮기는 경향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상황절을 가지는 제시문의 경우 상황절의 종류에 무관하게 상황절과 주절의 상호 순서를 한국어 문장에 제시된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국이 너무 뜨거워서 피에르는 혀를 데었습니다.
Parce que le bouillon est très chaud Pierre se brûle à la langue.

도착하는 대로 나에게 편지하십시오
Aussitôt que vous arrivez, écrivez-moi.

프랑스어의 상황절 가운데는 quand+절 처럼 문장의 앞 혹은 뒤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parce que 절은 주절의 뒤,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aussitôt que 절은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할 수 없는 종속절이다. 또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은 오후 다섯 시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탑니다
Vous prenez le métro pour retourner à la maison à 17 heures.
Vous prenez metro pour rentrer chez vous à 5h
→ Vous prenez le métro à cinq heures de l'après-midi pour rentrer chez vous.

‘오후 다섯 시에’는 지하철을 타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뒤이어 나타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와 연결하여 프랑스어로 옮기고 있다.

한국어에서 현재 시제의 종결 어미로 ‘··(ㄴ)다’를 사용할 경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적 의미의 시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 있다’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때가 많은데, 학생들은 ‘··(고) 있다’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être en train de 와 같은 진행형을 쓰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었다. 이는 동사의 시제 표현에 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생들의 답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의식 속에는 ‘··고 있다’는 진행형, ‘··(할) 것이다/··겠다’는 미래시제, ‘··(ㄴ)다’는 현재 시제, 등등

4) 제시된 표에 인용된 프랑스 문장들은 학생들이 과제로 제시한 답 그대로 실은 것으로, 문장들 앞에 틀린 문장을 표시하는 * 표시는 일괄적으로 생략하였다. 오류가 한 답안 내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라 해도 논지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고딕체로 표시하였고, 정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뒤에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어 동사의 종결어미 형태에 일정한 시제를 대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대응관계를 프랑스어로 옮길 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여자들은 옷가게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Ces filles sont en train de regarder une boutique.

피에르는 자기의 양말을 찾고 있습니다.
Pierre est en train de chercher ses chaussettes.

다음에 제시된 예문들은 한국어 제시문의 문 구조를 그대로 본따 프랑스어로 옮긴 대표적인 예로, ‘형제가 (주어)–몇 (얼마) (보어)–입니까?’의 문형은 프랑스어에서 그대로 ‘les cousins / le nombre des cousins + être + combien / quel’의 구조로 옮겨져 있다.

마리는 사촌 형제가 몇명입니까?
Combien êtes les cousins de Marie?
Quel est le nombre des cousins de Marie?

마찬가지로 우리말 ‘..이다’와 관련된 아래 문장에서, 우리말 문장의 주어는 프랑스어 문장에서도 주어로, ‘이다’는 ‘être’로, 그리고 ‘이다’ 앞의 명사는 보어로 그대로 옮기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 집은 세 식구입니다.
Ma famille est trois membres .
→ Ma famille a trois membres.

아래 예문은 우리말에서 동사+동사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소위 복합동사와 관련된 오류이다.

어머니는 옷들을 옷장에 정리해 넣습니다.
Ma mère range des vêtements et en met dans l’armoire.
Ma mère arange les vêtements et les met dans l’armoire.
→ Ma mère range les vêtements dans l’armoire.

우리말에 있어서 ‘정리해 넣다’는 외형상 ‘정리하다’와 ‘넣다’의 결합 즉 동사 1+동사 2의 결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 예문의 일차적인 의미는 ‘정리해서 그것을 넣는다’가 아니라

‘정리하다’라는 의미이다⁵⁾. 많은 학생들이 외형상 V_1+V_2 형태가 등장하는 경우 표에서 보듯이 두 개 동사의 병렬구문으로 옮기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V_1+V_2 인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말에서 거의 하나의 복합동사로 인정되고 있는 ‘주다’ 계열의 동사, ‘버리다’ 계열의 동사들, ‘내버려두다’ 같은 ‘두다’ 계열의 동사는 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고 프랑스어 문장에서도 하나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⁶⁾ 이것은 구조 모사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어 문법 현상에 대해 갖고 있는 학생들 각자의 언어 지식을 프랑스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어만의 독특한 구문 특성이라 해도 그것이 일반적인 규칙화가 가능한 규칙적인 현상일 경우 작문 연습의 초기에는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명사구에서 한정사의 사용이 의무적이라거나, 동사의 목적어 명사구는 동사 뒤에 위치한다거나 하는 프랑스어의 구문 특징들은 한국어에는 없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단기간에 초기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오류의 판단

특정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언어 간섭에 의한 오류 사례들은 모국어인 한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행 학습된 외국어인 영어에 의해 유도된 오류인지의 판단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략적으로 구문 구조에 대한 그릇된 분석에 의한 모사는 제시문의 언어인 한국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다’ 구문에서의 프랑스어 작문 오류들은 한국어 제시문의 외견상의 문형 구조를 그대로 모사하여 발생한 한국어에 의한 오류이다. 반면 목적보어들이 동사 앞에 위치하는 한국어와는 달리 동사 뒤에 나타나는 목적보어 대명사 어순에서의 오류나 이중 목적어 구문과 관련된 오류는 한국어에는 없으나 영어에는 나타나는 구문 현상이면서, 그 오류가 영어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갖고 있는 영어에의 참조에 의한 오류로 구분하였다.

어느 특정 한 언어만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단정짓기 힘든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정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한 프랑스어 표현 연습이 아니라 한국어 제시문을 통해서 이를 프랑스어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작문 연습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국어 구문구조의 전이의 영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작문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외국어로서 선행 학습한 영어를 참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언어지식 또한 완전

5) 이는 불작문의 예문으로 사용할 동사를 미리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문이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프랑스어의 *ranger*가 장소의 보어를 취하는 동사이고 장소의 보어가 등장하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옷장에 정리하다’가 아닌 ‘옷장에 정리해 놓다’와 같은 표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6) ‘보여 주다’, ‘빌려주다’, ‘도와주다’, ‘용서해 주다’, ‘설명해 주다’, ‘사주다’, ‘따라주다’, ‘올어버리다’, ‘먹어버리다’ 등등. 구조모사는 어휘모사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Je n’ai pas entendu le voix tu entrer.)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류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고, 따라서 언어 간섭의 영향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신증을 요한다. 예를 들어 명사의 복수형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한국어 제 시문에 복수 접미사 ‘-들’이 명사에 함께 등장해 있는 경우는 프랑스어로 옮길 때 복수형으로 옮기지만 ‘-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은 문장의 경우는 대부분 명사의 단수형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어에 대응되는 프랑스어 어휘를 모를 경우 곧바로 한불사전 등을 찾아보지 않고, 우선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어휘를 떠올리고 이를 프랑스어 식으로 옮겨 사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아래 예문에서의 *vacance*나 *affaire*의 단수 사용은 ‘-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한 이에 대응되는 영어 어휘 ‘*vacation*’, ‘*business*’ 등의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⁷⁾

마리는 여름 방학을 시골에서 보낼 것입니다
Marie passera la vacance d'été à la campagne
→ Marie passera ses vacances d'été à la campagne.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ai jugé que je dois faire cette affaire .
J'ai jugé faire l'affaire .
→ J'ai jugé devoir faire ce travail.

너 내일 올 수 있니?—아니, 할 일이 있어
Peux-tu venir demain? Non, J'ai l'affaire .
→ Peux-tu venir demain?-Non, je suis pris.

프랑스어에서 ‘*affaire*’는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의 그 의미가 다르다. 단수형인 경우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복수형인 경우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많은 학생들이 ‘*affaire*’의 단수형을 사용한 것은, 외형상 복수 표지가 없기 때문에 단수형을 택한 구구조 모사로 해석할 소지도 있지만, 단수/복수에 따른 의미 차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인 ‘*business*’를 참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휘 사용에서의 이러한 오류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아래 표에서

7) ‘여름 방학’을 단수로 사용한 학생의 수는 예상보다 많지 않았는데, *vacances d'été*, *grandes vacances*와 같이 하나의 복합명사로 간주되는 자주 사용되는 고정 표현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형태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으로, ‘3일간의 휴가’와 같은 표현에서는 대부분 단수형을 사용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피에르는 6월에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Pierre a décidé d' aller les vacances en juin.
Pierre a décidé d' aller aux vacances au juin.
→ Pierre a décidé de prendre ses vacances en juin.

‘휴가를 가다’에 대한 표현으로 ‘partir en vacances’나 ‘prendre les vacances’가 아닌 ‘aller’(aller+전치사)를 사용한 것 역시 영어에서의 ‘go on holiday’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 없는 구문 현상인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 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언어 현상이라고 해서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언어 현상이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현상인 경우에는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초기단계를 제외하면 오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는 언어 간의 차이가 꼭 오류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어에는 없는 구문 현상이면서 또 일반적인 규칙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언어 현상인 경우, 학생들은 자연히 그들의 제1외국어인 영어를 참조하는 경향을 보였다.⁸⁾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관사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서 많은 오류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기 쉽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떤 관사의 용법에 있어서는 거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어떤 관사 용법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오류의 수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속사구문에서의 무관사 용법, 특정한 것을 나타내는 정관사 단수의 용법 등은 앞서 언급한 일반 규칙으로 명시화 가능한 언어 현상의 경우이다. 반면 정관사와 부정관사 복수형에서의 용법 구분과 같이 상황, 문맥에의 참조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 양상은 영어에서의 관사 사용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관사 선택과 관련된 오류의 일부는 영어 간접 오류로 판단하였다.

3. 영어 참조에 의한 구조적 오류

영어에 의한 간접으로 추정되는 구조적 오류는 크게 목적보어 대명사의 어순과 관련된 오류, 동사 구문 구조에 있어서의 오류, 명사와 명사 수식어간의 어순관계에 있어서의 오류, 명사구 내에서의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8) 한학기 동안 약 15과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에의 모사현상에 비하여 영어에 의한 간접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어의 구조와 무관한 현상인 경우 영어에서의 문법 현상을 참조하여 옮기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1 목적보어 대명사의 위치

프랑스어에서는 목적어가 명사구인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위치하지만,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제한 구문이나 다른 보어와의 비교, 강조를 나타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약세대명사이다. 반면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명사구의 형태이건, 대명사이건 동사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 작문 연습의 초기 단계에서 일부 학생에게서 발견되는 목적보어 대명사가 동사 뒤의 위치에 나타나는 오류는 이러한 영어에의 참조에 의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La connaissance de la langue étrangère aide lui .
→ La connaissance des langues étrangères lui a beaucoup servi.

경찰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석방했다.
La police a libérée lui parce qu'elle n'a pas la conviction.
→ La police n'en est pas sûre, alors, elle l'a laissé en liberté.

그의 부모님은 그를 피에르라 이름 지었다.
Ses parents appellent lui Pierre.
→ Ses parents l'ont nommé Pierre.

간접목적보어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동사 뒤의 위치에 나타나는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다만 영어의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구문에서 간접보어 대명사가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목적어에 선행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달리, 학생들은 일관되게 직접목적어-간접목적어의 순을 택하고 있었고, 문장 내에 간접목적어만 나타나건, 다른 직접목적어와 동반하여 나타나건 간에, 영어에서처럼 전치사+대명사의 형태를 사용한 것이 많이 발견되었다.

도착하는 대로 나에게 편지하십시오.
Faites une lettre à moi aussitôt que vous arrivez.
Envoyez une lettre à moi aussitôt que vous arrivez.
→ Ecrivez-moi dès votre arrivée.

그 사고는 당신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L'accident servira de leçon à vous .
→ Cet accident vous servira de leçon.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Les information de langue étrangere ont ete tres utile a lui
→ La connaissance des langues étrangères lui a beaucoup servi.

나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겠습니다.
J'enseigne le façon de résoudre le problème à vous .
→ Je vais vous indiquer un moyen facile pour résoudre ce problème.

만원만 빌려줄래?
Peux-tu prêter dix mille won à moi ?
→ Tu me prêtes dix mille wons?

새로 산 양복을 나에게 보여주겠니?
Est-ce que vous montrez le costume nouveau à moi ?
→ Veux-tu me montrer ton complet neuf?

3.2 동사 구문 구조의 오류

프랑스어와 영어에서 구문 특성을 달리하는 동사들이 있다. ‘전화하다’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말에서는 ‘...에게 전화하다’와 같이 간접보어를 취하는 동사이지만, 반면 프랑스어의 ‘téléphoner’는 한국어처럼 간접보어를 취하는 간접타동사이다. 영어의 ‘telephone’는 직접보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의 용법이 있는데 아래 표의 ‘téléphoner’를 직접타동사로 사용한 오류는 영어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리는 친구를 저녁식사에 초대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Marie a téléphoné son ami pour inviter à diner.
→ Marie a téléphoné à son ami pour l'inviter au dîner.

또 다음 예문은 ‘용서해주다’에 대응되는 프랑스어에서의 ‘pardonner’와 영어의 ‘forgive’가 서로 간접타동사 / 직접타동사의 구문 구조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직접타동사로 잘못 사용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럽게 해도 사람들은 그들 을 용서해 준다.
Ces enfants sont bruyant, mais on pardonne eux parce que ces enfants n'est pas expérimenté à vie de l'appartement.
→ Ces enfants sont bruyants, mais on leur pardonne, car ils n'ont pas l'habitude de la vie en appartement.

다음의 예문은 영어 참조의 오류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영어의 이중 목적어 문장은 직접 목적어-간접목적어의 순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순서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후자의 순서로 나타날 때 간접목적어 앞의 to가 사라지면서 외견상 마치 두 개의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경우 give 동사와 같은 구문에 있어서 각각의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문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간접목적어 기능의 명사구라 할지라도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한편 동사 뒤에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은 두 개의 목적어가 나타나는 이러한 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형식의 문장구조는 프랑스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한 문장내에 동일 기능의 목적보어가 중복하여 출현할 수 없다. 또 간접목적보어 명사구는 전치사 à를 동반하고 간접목적보어가 대명사라면 일반적으로 약세형 대명사형으로 동사 앞에 위치한다. 아래 첫 번째 예문은 목적어를 둘 가진 문장에서 영어와 같은 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형식의 문장을 만든 오류를 보여주고, 두 번째 예문은 이러한 문장을 토대로 간접목적어를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한 오류의 예를 보여준다.

마리의 아버지는 마리에게 결혼 선물로 차 를 한 대 사주었다.
Le père de Marie a acheté sa fille la voiture comme le cadeau de mariage.
→ Le père de Marie lui a acheté une voiture comme cadeau de mariage.

연초에 프랑스에서는 수위와 우체부에게 새해 선물을 줍니다.
Au début de l'année, le gardien et le facteur sont donnés un cadeau en France.
→ En France, on donne des étrennes (des cadeaux de Nouvel An) au concierge et au facteur au début de l'année.

3.3 형용사 수식어의 어순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한정적 용법의 수식형용사는 수식어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those two large fine old stone houses’에서와 같이 수식대상 명사의 앞에 연속하여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어에서는 일부 형용사를 제외하면 수식 형용사는 수식 대상 명사의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1과에 제시되었던 아래 예문에서, 수식형용사의 위치와 관련한 다양한 오류가 발견되는데, 이는 영어에의 참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여가수는 금발의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입니다.
Cette chanteuse est blonde grande femme mince .
Cette chanteuse est grande femme blonde mince .
La chanteuse est blonde, grande et mince femme.
→ La chanteuse est une grande femme mince et blonde.

프랑스어에서 수식형용사의 일반적인 위치는 명사 뒤이지만, 명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제한적이다. 또 명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형용사라 할지라도 여럿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수식형용사 전체가 대상 명사 앞에 등장하지 못하며, 연속형은 명사 뒤의 위치로 옮겨 사용해야 한다. 즉 명사 앞의 위치에서는 수식형용사의 연속형이 쓰일 수 없다. 또 형용사가 연속해 나타날 경우 형용사들 사이에는 쉼표(virgule)가 사용되며 연속된 형용사중 마지막 형용사 앞에는 쉼표 대신 ‘et’ 접속사가 사용된다. 예문에서 세 번째 답안이 가장 영어식의 표현법에 가깝게 옮긴 것이라면, 다른 답안은 프랑스어에서 형용사에 따라 명사의 앞 혹은 뒤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형용사들이 연속될 때와 연관된 규칙을 숙지하지 못하고 영어식으로 표현한 예이다.⁹⁾

9) 이 때 한국어에도 있는 <수식어+피수식어> 구조에의 참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단순히 명사 앞의 위치에 연속형이 나타나는 예에 그치지 않고, 명사 앞, 뒤에 나눠 사용하고 있는 오답의 유형까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영어에의 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오류가 언어 간섭이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한 오류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한다기 보다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한국어 제시문의 구조를 그대로 모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영어에의 참조에 의한 오류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수정되었는데, 프랑스어 고유의 어법을 정확히 익히고 있지 못했던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선행 학습한 외국어인 영어를 참조하지만, 동일 언어 현상이 반복적으로 혼란될 경우 영어에의 의존은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프랑스어 문법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프랑스어의 관사 체계를 들 수 있다. 한국어에는 프랑스어의 관사에 대응되는 문법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 없는 관사체계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할 때 자연히 교수자들은 선행학습되어 있는 관사체계를 가진 영어의 예를 들어 비교 설명하게 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영어의 예에 비추어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어에서는 명사는 반드시 한정사를 취하여야 하고, 관사는 그 한정사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관사의 사용에 있어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일차적으로는 관사의 의무적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올바른 관사의 선택과 관련한 적용에서의 어려움이다. 한국어에 관사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사를 사용하는 오류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추정과는 달리 학생들은 프랑스어에서의 관사의 의무적인 사용은 1과를 지나고부터는 쉽게 적응하였고, 역으로 무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한편 올바른 관사의 선택과 관련한 오류는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프랑스어에서 명사가 취하는 관사는 크게 부정관사, 정관사, 부분관사 세 종류가 있고, 영어에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다. 프랑스어에서는 일부 특수한 구문을 제외하면 관사의 사용이 의무적인 데 반하여, 영어에서는 관사가 생략되는 현상이 프랑스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발견된다. 아래 제시된 오류는 프랑스어에서 관사의 사용이 의무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의 *another*의 용법을 참조하여 생긴 관사 생략의 오류이다.¹⁰⁾

저는 당신이 다른 대답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J'espérais autre réponse de vous.
J'ai espéré votre autre réponse.
→ J'espérais de vous une autre réponse.

10) 프랑스어에서는 *autre*는 소유형용사와 공기할 수 없다.

프랑스어에서의 정관사, 부정관사의 용법은 영어에서의 정관사 **the**, 부정관사의 **a(n)**의 용법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언어의 관사체계를 단순 대응시켜 설명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프랑스어 관사 체계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영어의 관사체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학습자에게 영어의 관사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더 큰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프랑스어 문법서에서 부정관사 단수형의 가장 대표적인 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셀 수 있는 명사에 있어서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개체를 가리키는 ‘어떤’의 의미와 ‘하나’라는 수사로서의 의미이다. 프랑스어에서 부정관사 단수형 **un(e)**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영어에서는 **a** 와 **one** 이라는 표현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Je suis **un renard**.

-I am **a fox**.

Le petit prince traversa le désert et ne rencontra qu'**une fleur**.

-The little prince crossed the desert and met with only **one flower**.¹¹⁾

정해져 있지 않은 단수 개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부정관사 단수형의 사용에 있어서는 오류가 그다지 발견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 불특정의 의미 구분이 한국어에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구분에 관사의 선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오류들이 눈에 띄었다.

나갈 때 문을 닫지 마시오
Ne fermez pas une porte quand vous partez
→ Laissez la porte ouverte en partant.

언어적 문맥 혹은 비언어적 상황에 의하여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 프랑스어에서는 정관사를 사용하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그 명사의 수에 따라서 **le / la, les** 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영어의 정관사 **the** 역시 대개 상황이나 문맥에 의하여 정해진 대상, 알고 있는 대상인 경우이거나 유일한 대상을 가리킬 경우 사용한다¹²⁾. 명시적으로 ‘이, 그, 저’ 등의 표지에 의

11) 김언자 (2005)는 <어린 왕자>를 대상으로 하여 프랑스어판과 이의 영어 번역본 사이에 나타나는 프랑스어 관사와 영어에서의 대응 표현들을 분석하였다. **a(n)**가 ‘하나’라는 의미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수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부정관사가 아닌 수사 **one**을 사용한다. 이밖에 부정관사의 총칭적 용법에 있어서도 두 언어는 유사하다. (A cat is not so vigilant as a dog. / Un soldat ne pleure pas.)

12) J'entends **le** chat qui essaie d'entrer.-I can hear **the** cat trying to get in.

Les chats qui viennent dans notre jardin font un raffût terrible.-**The** cats that come into our garden make a terrible row. (Chuquet, H and M. Paillard (1989)에서 인용)

하여 특정한 대상임이 드러나 있는 경우나 유일물을 가리키는 경우의 정관사 사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오류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고등학생들의 영어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분석을 다룬 이보경의 논문 (2005)에서 한정성과 관련하여, 문맥에 의한 한정성이나 상황에 의한 한정성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정관사를 사용해야 할 곳에 부정관사를 사용한 틀린 응답률이 개별 문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³⁾ 이는 한국어에 있어서 명시적인 구문 차이로 표현되고 있지 않은 특정 / 불특정 의미 구분 자체를 학생들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의미 구분을 관사로 나타내는데 있어서의 오류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어 관사체계에 대한 참조는 프랑스어 작문에 있어서 오류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데, 특정 / 불특정 대상의 판단은 언어적 문맥에서 수식구를 동반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어에서는 명사가 지칭하는 외연적 대상을 한정하는 수식 어구를 동반하고 있어도, 그 의미가 특정한 대상인 경우에는 정관사를 사용하지만, 특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사용한다.¹⁴⁾ 따라서 수식어구를 취하는 명사구의 예문에 있어서 더욱이 상황이나 문맥에 의한 의미 정보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의 불작문에서 학생들이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수식어구의 수반을 곧 특정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Le père espéré l'effet different de la cela de son fils
→ Le père attendait de son fils un autre résultat.

13) 이보경(2005) 참조.

I saw a dog. (The) dog had a bone in his mouth.

(정관사 정답률 50% / 부정관사 사용률 42.2%)

Tom moved to a new house. (The) roof is red.

(정관사 정답률 54.7% / 부정관사 사용률 32.8%)

What a busy day! Right after breakfast, I met Sujin at (the) library. We had a histoy project. (정관사 정답률 70.4% / 부정관사 사용률 10.9%)

Oh, people are coming through (the) gate.

(정관사 정답률 45.3% / 부정관사 사용률 40.6%).

14) 영어에서도 유사한 양상인데, 의미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해서 특정 관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아래 첫 번째 영어 대응 예문에서의 the는 동일 관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이고, 두 번째 예문은 후속 문장에서의 대명사 them의 사용을 고려한 것이다.

Il profita, pour son évasion, d'une migration d'oiseaux sauvages.-For his escape he took advantage of the migration of a flock of wild birds.

Toi, tu auras des étoiles comme personne n'en a. -You will have the stars as no one else has them. (김언자 (2005)에서 인용)

나는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겠습니다.
J'enseignerai la façon facile qui résoud ce problème à tous.
→ Je vais vous indiquer un moyen facile pour résoudre ce problème.

영어의 관사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오류들이 발견되는데, 다음 항목과 같이 수식에 의한 한정성에 있어서는 의미상 부정관사를 써야할 경우에 정관사를 사용한 오답률이 7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았다.

- () student who entered the school three years ago will graduate this year.
 () first / second girl entered the classroom.¹⁵⁾

영어에서도 학생들은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들의 존재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특정 대상으로 간주하여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와 프랑스어에서의 이러한 동일한 관사 사용의 오류 결과는 학생들이 관사체계에 대하여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외국어의 관사체계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어에서 관사는 명사구 구성의 필수 요소이며,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개체의 단수 / 복수에 따라 관사의 단수형 / 복수형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셀 수 없는 명사인가는 본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징이 아니다. 일정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셀 수 있는 명사 혹은 셀 수 없는 명사로의 성격이 결정된다. 역으로 생각하면 부정관사, 정관사의 복수형이 동반한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로서 기능한 것이다. 영어에도 이러한 현상은 있다. I had chicken for lunch에서 chicken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사용된 것이고, The farmer killed three chickens에서의 chicken은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문적 특성의 차이는 곧 의미의 차이와 연결되어 전자문에서 chicken이 ‘닭고기’의 의미라면, 후자문에서의 chicken은 생물로서의 ‘닭’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 / 복수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는 명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 ‘les ancêtres (조상)’, ‘les légumes (채소)’, ‘les funérailles (장례식)’, ‘les mœurs (풍습)’, ‘les gens (사람들)’ 등의 어휘들은 복수형으로만 쓰인다. 또는 ‘vacance (공식) / vacances (휴가)’, ‘lunette (망원경) / lunettes (안경)’ 처럼 단수형, 복수형이 모두 가능하지만 수를 달리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¹⁶⁾ 영어에서도 셀 수 없는 명사로만

15) 김현숙 (2005) 참조.

16) 이러한 현상은 정관사 혹은 부정관사 복수형의 사용이 곧 해당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흔히 관사의 선택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가산성’이라는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많은 예를 검토해보면 ‘가산성’이라는 수적인 개념으로 국한시키기보다 추상명사나 물질명사에 있어서의 여러 관사 사용까지를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으면 질적인 측면에서 개별 유형으로의 분리가능성까지를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The information he gave me was wrong.

-Les renseignements qu'il m'a donnés étaient faux.¹⁷⁾

위의 예처럼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하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에서의 관사 사용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구’를 의미하는 영어의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이지만 이에 대응되는 프랑스어 ‘meuble’은 셀 수 있는 명사이다. 따라서 ‘antique furniture’는 프랑스어 ‘des meubles anciens’로 옮겨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옷’을 뜻하는 영어의 ‘wear’는 셀 수 없는 명사이고 ‘casual wear’는 ‘les vêtements sport’로 옮겨진다.¹⁸⁾ 이처럼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명사 범주의 성격을 달리하는 어휘들을 몇 가지 제시해보자.¹⁹⁾

영어	프랑스어
hair	(les) cheveux
advice	(les) conseils
furniture	(les) meubles
information	(les) renseignements
news	(les) nouvelles
business	(les) affaires
homework	(les) devoirs
work	(le) travail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이는 영어어휘들은 수식어구를 취하지 않는 경우 대개 무관사로 등장한다. 다음은 영어와 프랑스어 간에 명사나 특정 관용구에서의 관사 사용이 달라서 생겨난 오류들이다.

17) 이하 제시되는 영어-불어의 대응 예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모두 Chuquet, H and M. Paillard (1989)에서의 인용 예문들이다.

18)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로서의 un vêtement 은 영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a jacket 이나 a garment 등의 적절한 의미의 구체적인 어휘로 옮길 수 밖에 없다

19) H. Chuquet & M. Paillard (1989) pp.46-47. 도표 내의 정관사는 이들 명사가 프랑스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로 사용됨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항상 정관사로만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관사에 ()는 필자가 임의로 첨가한 것임.

아침식사 후 나는 내 친구와 약속이 있다.
Après petit-dejeuner , j'ai rendez-vous avec mon amie.
→ J'ai un rendez-vous avec mon ami après le petit déjeuner.

마리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아침식사 를 하십니까?
Ou la mere de Marie prend petit déjeuner ?
→ Où est-ce que la mère de Marie prend son petit déjeuner?

피에르의 형이 마리에게 충고 를 해줍니다.
Le frère aîné de Pierre donne conseil à Marie.
→ Le grand frère de Pierre donne des conseils à Marie.

영어에서는 호격, 동격, 관용구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 문장에서 무관사명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수 명사에서, 그리고 추상명사나 물질명사의 경우이다.

You will call me, like **music**, out of my burrow.
We are **roses**.²⁰⁾

프랑스어에는 부정관사 복수형 **des** 가 있는데, 주로 불특정 개체의 복수명사에 쓰인다. 영어에는 프랑스어의 **des**에 해당되는 별도의 표지가 없고, 일반적으로 무관사명사-s 혹은 불특정 수를 나타내는 **some**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Il y a **des chats** dans notre jardin. -There are **cats** in our garden.
Je vois **des chats** là-bas dehors.- I can see **some cats** out there.

그런데, 영어의 무관사명사-s 는 이같은 불특정 대상 복수형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래 예에서 영어의 무관사명사-s는 의미적으로 프랑스어의 정관사 **les** 의 총칭적 용법에 해당한다.

Tigers do not eat weeds. -**Les tigres** ne mangent pas l'herbe.

20) 대응되는 프랑스어 표현은 Le tien m'appellera hors du terrier, comme **une musique**.와 Nous sommes **des roses**.이다. 김연자 (2005)에서 인용.

프랑스어에서 총칭적 의미는 부정관사 단수형, 정관사 단수형, 정관사 복수형 등 다양한 관사에 의하여 표현된다.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 주로 정관사 복수형을²¹⁾, 셀 수 없는 물질명사나 추상명사가 종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정관사 단수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Les chats sont des mammifères.

Le beurre coûte cher.

이 프랑스 문장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은 모두 무관사로 나타난다.

Cats are mammals.

Butter is expensive.

간단히 도식상으로만 비교해 보아도, 명사 복수형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특정 복수 대상이 아닌 경우 프랑스어에서는 그 의미에 따라 부정관사 혹은 정관사의 선택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영어에서는 무관사명사-s로 단일하게 표현되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어에서 관사의 사용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무관사 명사-s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지만, 복수 명사인 경우 부정관사 복수형과 정관사 복수형 중에서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사실은, 한정구를 동반하지 않는 명사구에 있어서의 특정 / 불특정 의미 구분에 익숙치 않은 것에, 영어의 관사 체계에서는 비슷한 용례에서 관사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별들이 빛난다.
Des étoiles brillent.
→ Les étoiles brillent.

식사 마지막에 우리는 후식으로 과일을 먹었다.
On mange les fruits pour le dessert à la fin de repas.
→ A la fin du repas, nous avons pris des fruits comme dessert.

프랑스어의 부분관사를 설명할 때, 셀 수 없는 물질명사나 추상명사와 함께 사용되며, 영어의 some, any 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영어에서는 물질명사나 추상명사는 일반적으로 무관사 형태로 사용된다.

21) 부정관사 단수형 혹은 정관사 단수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단수형이 종을 대표하는 경우는 대개 문장 주어인 경우며, 정관사 복수형으로 쓴 경우와 정관사 단수형으로 쓴 경우에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Il y a **du beurre** au frigo. -There's **butter** in the fridge.

J'ai acheté **du beurre**. -I bought **some butter**.

위의 예를 통해 프랑스어의 부분관사는 개념, 물질로서의 의미와 일정 양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영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추상, 물질명사라 하더라도 문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대표로서의 종을 나타낼 때는 **le** 정관사를, 종류 가운데 한 유형이라는 ‘일종의’의 의미일 때는 다시 부정관사를, 그리고 일반 추상, 물질명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부분관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영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화된 용법을 찾아볼 수 있다.

Passe-moi **le beurre** s'il vous plaît. -Pass me **the butter** please.

Le beurre que j'ai acheté hier ne coûtait pas cher. -**The butter** I bought yesterday was cheap.

Il montra **un courage** qui surprit tout le monde. -He showed **a courage** that surprised everyone.

그런데, 영어에서 의미의 분화를 보이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의 분화가 프랑스어에서와 같은 관사 사용에 있어서의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는 영어에서는 무관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양을 나타내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Un bon fermier blanc avait promis **la liberté** à son esclave.

-A good wife farmer promised **freedom** to his slave.²²⁾

이는 학생들이 물질, 추상명사에 있어서 한정어구를 수반하여 ‘일종의’의 의미인 경우 부정관사를 큰 어려움없이 사용했던 것에 반하여, 종을 나타내는 경우와 양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커피 를 뜨거울 때 마신다.
Il boit du café de chaud
→ Il boit le café chaud.

22) Il montra **un courage exceptionnel**. -He showed **o unusual courage**. 같은 예도 있는데, 프랑스어에서는 관사가 의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규칙에 따른 특정 관사의 출현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고기를 드시기 전에 전채요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Est-ce que vous prenez l'entrée avant de la viande ?
Est-ce que vous voulez manger des hors-d'heure avant de manger de la viande .
→ Vous ne voulez pas de hors-d'oeuvre, avant la viande?

또 양 언어간에 물질명사에 속하는 어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다음은 이같은 명사 범주의 차이에 의한 관사사용의 오류이다.

과일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포도 를 하시겠습니까 혹은 바나나를 하시겠습니까?
Quel fruit vous voulez choisir? Des raisins ou des bananes?
→ Qu'est-ce que vous voulez comme fruit, du raisin ou une banane?

4. 맺는 말

프랑스어에 있어서 관사의 선택은 해당 명사의 문장 내에서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명사의 유형과 무관하게 문장에서의 의미에 따라 -종(種)을 의미할 때는 정관사, 불특정 개체인 경우는 부정관사, 특정 개체인 경우는 정관사, 셀 수 없는 명사로서의 의미인 경우는 부분관사 등등 - 관사의 사용이 규칙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면, 영어에서는 전반적으로는 프랑스어와 비슷한 관사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사의 기본 범주와 외형적인 한정구의 동반 여부에 의해 관사의 선택이 가변적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특정 / 불특정, 가산 / 비가산 등의 의미분화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관사체계의 연관이 기계적인 일대일 대응 도식에 벗어나면서 영어에서는 그 사용이 분화되지 않고 쓰이고 있는 관사 용법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나타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과제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관사의 특정 대상을 가르키는 용법과 부정관사의 불특정 단수 개체를 가르키는 용법에 있어서는 오류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은 반면, (1) 수식어구를 취하면서 부정관사 / 정관사의 선택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 (2)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에서의 관사 선택의 경우 (3) 개념, 물질로서의 의미와 양으로서의 의미에 따른 관사 선택의 경우에는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게다가 학생들은 영어의 관사체계에 있어서도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그릇된 관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어에의 참조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관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어의 활용이 프랑스어 관사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초기 학습단계에서는 분명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이 진행될수록 영어의 활용은 영어

의 부정적인 간섭에 의한 전이를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의 영어 관사체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한편 관사 사용을 제외한 기타 영어 간섭의 경우는 프랑스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 주로 나타나며 비교적 단기간에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언어 간의 차이가 곧 오류로 연결된다기 보다, 프랑스어 고유의 구문특성이라 하여도 그것이 명시적인 규칙화가 가능한 현상일 경우 오히려 학생들은 오류없이 쉽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 문법 교육에서 단순히 특정 관사에 있어서의 가능한 모든 용법의 나열이 아닌 관사 체계 전반의 통합 구조를 보여줄 것이 요구되며, 세분화된 의미의 인지가 적절한 관사 사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담화나 텍스트 형태의 다양한 예문들을 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호, 전경준. 1995. 『대학불어작문』. 신아사.
- 김언자. 2005. “<어린 왕자>의 영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살펴본 불어와 영어의 관사용법의 비교”, 『프랑스 어문교육』. 제 19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71-293쪽.
- 김현숙. 2005. “고등학생들의 영어 관사 사용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 박동열. 2006. “프랑스어 정관사, 부정관사에 대한 이해분석-대학생 학습자의 오류분석”. 『프랑스 어문교육』. 제 2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3-41쪽.
- 서정철. 1999. 『표준불문법』. 신아사.
- 이보경. 2005. “한국고등학생들의 영어관사 사용에 관한 오류 분석”.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현배. 1980. 『우리말본』. 정음사.
- Chuquet, H and M. Paillard. 1989. 『Approche linguistique des problèmes de traduction anglais <-> français』. Ophrys.
- Jeanmaire, Guillaume. 2006. Analyse des fautes typiques des apprenants coreanophones lors de l'apprentissage du FLE. . 『프랑스어문교육』. 제 22집. pp.97-153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Jespersen, Otto. 1974.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George Allen and Unwin LTD.
- Larruy, Martine Marquillo. 2003. 『L'interpretation des erreurs』. CLE.
- 두산 동아. 2003. 『영한 사전』. 두산 동아.
-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한불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Illingworth, F., M. Ollivier, P. Cabot and P. Loison (eds.). 2001. 『Larousse Français Anglais』. Larousse.

한정길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불어학과

363-791

E-mail: jkhan@mail.knue.ac.kr

접수일자 : 2008. 02. 25

게재일자 : 2008. 05. 15

